

사십절의 숨겨진 역사 - 이십칠번

에스겔 제8장

Jeff Pippenger

2026-08-17

에스겔서에는 날짜에 대한 언급이 '열셋' 있다. 그 가운데 여섯은 예루살렘을, 여섯은 애굽을, 하나는 두로를 다룬다. 이 모든 언급은 숫자 '열셋'이 상징하는 바인 반역의 문맥 안에 놓여 있다. 에스겔의 아내가 중풍으로 죽어 세 번째 포위 공격의 시작을 알린 지 이듬해에, 에스겔은 애굽을 향해 말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그 나라가 사십 년 동안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도록 하셨다.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가운데에서 황폐하게 하며, 그 성읍들을 무너진 성읍들 가운데에서 사십 년 동안 황폐하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애굽 사람을 못 나라 가운데로 흠으며 여러 나라에 헤칠지라. 그러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십 년의 끝에 내가 애굽 사람을 그들이 흠어졌던 민족들 가운데에서 모아 내고, 애굽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바드로스 땅, 곧 그들의 거주하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들이 거기에서 비천한 나라가 되리라. 에스겔 29:12-14.

포위는 기원전 588년에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1년 뒤인 기원전 587년에 에스겔은 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17절에서는 기원전 571년이, 베풀어진 봉사에 대한 대가로 애굽이 바벨론에게 넘겨질 것임을 밝힌다. 성경 연대학자들은 그 구절들에 나타난 40년의 기간을 기원전 567년부터 기원전 527년까지로 제시하며, 기원전 587년에 선포된 최초의 심판의 메시지로부터, 주께서 애굽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는 17절의 선언이 있었던 기원전 571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17년'의 기간을 보게 된다.

느부갓네살의 군대는 두로를 상대로 길고도 어려운 전역을 치렀다(포위는 약 13년간, 대략 기원전 586-573년에 걸쳐 지속되었다). 병사들은 지극히 고된 수고를 감당하였다(짐을 나르느라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되고 모든 어깨는 벗겨질 정도였다). 그러나 그들은 두로 자체로부터는 아무런 중요한 품삯이나 전리품도 얻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수익 없는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두로를 대적하여 행한 일에 대한 보상("품삯")으로 애굽을 느부갓네살에게 주기로 정하셨다.

그리고 바로 그 집에 머물며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는 일꾼이 자기 샅을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 누가복음 10:7.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은 먼저 두로를 취하였고, 열세 해의 포위 끝에 애굽을 받게 되었다. 그가 두로를 취하기 전에, 그는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취하였으며, 그 후 두로를 향하여 열세 해에 걸친 포위를 이루었고, 그 다음이 애굽이었다. 예루살렘은 기원전 586년에 함락되었고, 두로에 대한 포위는 기원전 586년에 시작되어 기원전 573년에 이르렀다. 숫자 열셋은 미국과 연관되어 있다.

화이트 자매는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예루살렘이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를 대표하며, 북방 왕 느부갓네살은 마지막 날들에 교황권을 대표한다고 우리에게 알려 준다. 제29장의 역사적 예증에서, 네 백성 가운데 강포한

자들로서 마지막 날들의 교황 로마를 대표하는 세력이 그 장에서 세 존재를 정복한다. 먼저 예루살렘을 취하고, 다음으로 두로를, 마지막으로 애굽을 취한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며, 미국에서 개신교의 뿔은 일요일 법에 앞서 먼저 정복된다. 미국에서 배도한 개신교의 뿔에는, 서기 34년에 옛 이스라엘이 그러하였고 1844년에 개신교도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지나침을 당하는 “이전” 언약 백성을 대표하는 라오디게아 상태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포함된다. 서기 34년과 1844년에 하나님의 그 이전 언약 백성이 지나침을 당한 일은 둘 다 다니엘 8장 14절의 이천삼백 년 예언의 예언적 역사 속에 표상되어 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며, 개신교의 뿔은 공화주의의 뿔에 앞서 심판을 받는다.

이는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될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리고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는가? 베드로전서 4:17.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첫 언급은 제29장의 첫 절에 위치해 있으며, 에스겔이 이집트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언급한 날짜는 같은 장 17절에 있다. 이 장은 현대 로마가 먼저 개신교라는 뿔을 정복하고, 이어서 곧 도래할 일요일 법에 의해 정복되는 공화주의라는 뿔을 상징하는 두로를 정복함을 밝힌다. 두로(미국)가 일요일 법 때 느부갓네살에게 정복될 때, 이집트 역시 그의 손에 넘겨진다. 그 시점에 교황권의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된다. 교황권의 치명적인 상처가 그때 치유될 뿐만 아니라, 에스겔은 이것이 늦은 비의 기간 동안 일어남을 우리에게 알려 준다.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의 뿔이 돌아나게 하며, 네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29:21.

야곱과 이스라엘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움트고 꽃피며 온 땅에 열매를 가득 채운다고 밝힌다. 움트는 것과 꽃피는 것과 열매 맺는 것의 세 단계는 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며, 이사야에 따르면 “거친 바람”이 그칠 때 늦은 비가 이른다. 그는 또한 움트고 꽃피며 열매 맺는 기간 동안 야곱의 죄가 제거되어야 함을 밝히는데, “제거되어야 한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속죄되다를 뜻한다.

주께서 그것을 내쫓으실 때에는 정도를 따라 그것과 변론하시며, 동풍 부는 날에 그의 거센 바람을 그치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로 말미암아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받게 되며, 이것이 곧 그의 죄를 제거하는 모든 열매이니,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백악 돌같이 만들 때에 아세라 목상들과 우상 형상들은 다시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27:8, 9.

분쟁의 네 바람(그의 거센 바람)이 억제될 때, 십사만 사천의 인치는 일이 시작되며, 재림교 내의 지혜로운 자들과 악한 자들이 마침내 분리되고, 이 모든 일은 “동풍의 날”에 이루어진다. 인치는 시기는 9/11의 뿌림으로 시작하여, 일요일 법령 때 완전한 부어 주심으로 마치며, 그때 땅은 열매로 가득 차게 된다. 인치는 시기는 말라기 3장과 일치하는 점진적인 정결과 제거의 과정이다. 그러나 에스겔 29장의 시작과 끝의 날짜로 표상되는 십칠 년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으로 표상되는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 곧

개신교주의의 뿔의 상징인 교회와, 두로로 표상되는 뿔 곧 공화주의의 상징인 국가가 정복된다. 두로에 대한 십삼 년 포위가 끝난 직후, 애굽으로 표상되는 열 왕의 일곱째 왕국의 정복이 일어난다. 예루살렘과 두로와 애굽에 대한 이 세 정복은 "이스라엘 집의 뿔"이 움트고 입의 열림을 받는 때에 일어난다.

제사장 에스겔과 제사장 스가랴의 병어리 됨은 둘 다 일요일 법에서 끝나는데, 그때 미국과 발람의 나귀가 함께 말한다. 주께서는 일요일 법에서 이스라엘 집에 "입의 열림"을 주신다. 그때 야곱의 죄들은 정결하게 제거되었고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 집으로 바뀐다. 그들이 선포하는 기별은 다니엘로 표상된 예언적 병어리 됨의 셋째 증인으로 대표되는데, 그는 그때 다니엘서 11장의 기별, 곧 그때 '말하며 거짓되지 아니하는' 하박국의 이상이기도 한 그 기별을 받는다. 에스겔과 스가랴와 다니엘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의 선포와 일치하며, 예레미야도 15장에서 그러하니, 거기서 그는 첫 번째 실망으로부터 되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입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는다.

어찌하여 나의 고통은 계속되며, 나의 상처는 고칠 수 없어 낫기를 거절하는가?
주께서 참으로 내게 거짓말하는 자 같으시며, 믿을 수 없는 물 같으시겠나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네가 돌이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들이리니, 네가 내 앞에 설 것이요, 또 네가 천한 것 가운데서 귀한 것을 가려내면
내가 내 입과 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올 것이나,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예레미야 15:18, 19.

예수께서는 시작으로 끝을 예시하시며, 9/11에 뿌려짐으로 싹이 돌아났고 야곱의 식물이 자라기 시작하였으며, 마침내 야곱의 불의가 정결하게 될 때 이스라엘의 집이 말하게 될 것이다. 비로 이루어진 9/11의 발아는, 인 치는 때의 끝에 있을 또 하나의 발아를 예표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집의 "뿔"이 싹을 내며, 바로 배도한 개신교와 공화주의의 뿔들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제압되는 그 자리에서 그러하다.

그 시점에서 개신교의 거짓 뿔과 개신교의 참된 뿔 사이의 구별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다른 지파이들과 구별되어 싹이 난 아론의 지파이로 예표된 바와 같이, 대조된다. 에스겔 29장의 두 날짜는, 곧 다가오는 일요일 법령 때에 일어날 십사만 사천의 기의 들어 올려짐의 역사를 식별해 준다.

싹이 트고, 꽃이 피며, 열매로 땅을 채우는 과정은 9/11에 늦은비가 뿌려질 때 시작되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몇 방울을 불어넣으심으로 오순절의 절기가 시작되었고, 마침내 오순절에 온전한 부어 주심이 이루어진 것과 같다. 야곱(속이는 자)의 정결케 하는 일이 시작되는 시점인 9/11의 싹틈은, 곧 인치는 때를 예표하는데, 이는 일요일 법령 때 이스라엘의 집(이기는 자)의 싹틈을 예표하였다. 끝에 이르러 나타나는 그 싹틈은 이전 언약의 백성과 십사만 사천 사이에 구별을 표시하는 것이니, 마치 갈멜산에 불이 부어짐으로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 사이에 구별이 드러난 것과 같다. 그 구별은 한 무리가 거짓된 평화와 안전의 기별로 말미암아 예언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 또 다른 무리는 예언적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들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의 여섯 날짜

에스겔은 애굽과 관련된 다른 네 개의 날짜를 제시하는데, 그 가운데 두 날짜는 포로 생활 제십일년을 가리키고, 다른 두 날짜는 포로 생활 제십이년을 가리킨다.

열한째 해의 포위 공격

열한째 해 첫째 달 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 왕 바로의 팔을 꺾었은즉, 보라, 그것이 싸매어 고침을 받지 못하며, 붕대로 감아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강하게 되지 못하리라. 에스겔 30:20, 21.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 왕 바로와 그의 무리에게 말하라. 너의 위대함이 누구와 같은가? 에스겔 31:1, 2.

사로잡혀 간 지 열한째 해에, 제30장에서는 애굽과 바로의 팔이 꺾이고 바벨론의 팔이 강하여진다. 제31장에서는 열한째 해에 애굽의 몰락과 그것이 세상에 미친 영향이 밝혀진다.

열두째 해와 예루살렘의 함락

열두째 해의 두 날짜는 에스겔 32장에 기록되어 있다.

열두째 해 열두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 왕 바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너는 민족들 가운데 젊은 사자 같고 바다들 가운데 고래 같도다. 네가 네 강들로 뛰쳐나와 네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들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와 함께 내 그물을 네 위에 펼치리니, 그들이 내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리라. 에스겔 32:1-3.

또 제십이년, 곧 그 달 십오일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애곡하고, 그들 곧 그녀와 이름난 나라들의 딸들을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땅의 깊은 곳으로 던져 내리라. 에스겔 32:17, 18.

바로와 그의 무리

이집트에 대한 31장의 선언에서, 마지막 절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그를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지옥에 던져 넣을 때에, 그의 넘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가 민족들을 진동하게 하였고, 에덴의 모든 나무들, 곧 레바논의 택함받은 가장 좋은 나무들,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들이 땅의 깊은 곳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그들도 그와 함께 지옥으로 내려가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이르렀으니, 곧 그의 팔이 되었던 자들, 이방의 한가운데서 그의 그늘 아래 거하던 자들이니라. 네가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서 영광과 위대함에 있어서 이같이 누구와 같으냐? 그러나 너도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땅의 깊은 곳으로 끌어내려져,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과 함께 할례받지 못한 자들 가운데 누우리라. 이것이 바로 바로와 그의 모든 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에스겔 31:16-18.

이집트에 대한 서른두 번째 장의 선언에서, 마지막 절들은 서른한 번째 장의 내용을 반복하고 확장하며, 또한 이에 상응하는 결말의 진술을 포함한다.

이는 내가 산 자의 땅에 내 두려움을 두었음이라. 그러므로 그가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과 함께 할례받지 못한 자들 가운데 누우리니, 곧 바로와 그의 모든 무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에스겔 32:32.

제29장의 17년

제29장에 제시된 십칠 년 기간에 해당하는 연대들은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정복하는 일과, 애굽의 사십 년 황폐 기간을 가리킨다. 사십은 광야를 의미하며, 이는 땅이 황폐하게 되는 천 년을 예표한다.

내가 땅을 보니, 보라,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었도다. 내가 산들을 보니, 보라, 그것들이 진동하며, 모든 작은 산들도 요동하였도다. 내가 보니, 보라,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들도 다 도망하였도다. 내가 보니, 보라, 기름진 곳이 광야가 되었고,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과 그의 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무너졌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4:23-27.

에스겔 29장에 기록된 이집트 황폐의 사십 년의 끝에서, 악인들의 최후의 부활과 그들의 궁극적인 멸망이 제시된다.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임하였도다, 땅의 거민아. 두려움의 소리를 피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질 것이요, 함정 한가운데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릴 것이라. 이는 높은 곳의 창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리기 때문이라. 땅이 완전히 깨어지고, 땅이 철저히 무너지며, 땅이 심히 요동하리라. 땅이 술 취한 자같이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초막같이 흔들릴 것이요, 그 위에 그 죄과가 무겁게 얹힐 것인즉, 땅이 넘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무리와 땅 위에 있는 세상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들이 구덩이에 모이듯 함께 모여 옥에 갇히고, 많은 날이 지난 후에야 벌을 받으리라. 이사야 24:17-22.

이집트와 관련된 여섯 개의 날짜에 의해 하나로 모아지는 에스겔의 기별은, 땅의 용의 세력의 궁극적인 멸망을 밝히 드러내는데, 그 멸망은 속히 도래할 일요일 법에서 시작되어 천년기의 끝에 악한 이집트인들이 최종적으로 멸망하기까지 계속된다.

예언적 증언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그 끝을 불못에서 맞이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한다. 그러나 용의 권세가 불못으로 멸망하는 것은 천년기의 끝에 이르러서이다.

그 짐승이 붙잡혔고, 그와 함께 그 앞에서 이적들을 행하여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도 붙잡혔다. 이 둘이 산 채로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졌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이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죽임을 당하니,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 먹었다. 요한계시록 19:20, 21.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예언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종말을 맞이만, 용은 그로부터 천 년 후, 곧 그리스도의 세 번째 강림 때에 자신의 운명을 맞는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있더라. 그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를 천 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고 가두어 그 위에 인봉하였으니, 이는 천 년이 차기까지는 그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요한계시록 20:1-3.

열한째 해와 열두째 해

에스겔 29장에 제시된 두 날짜가 가리키는 '열일곱' 해의 기간은 포로 된 지 제십년에 시작되어 제이십칠년에 끝났다. 30장과 31장의 기별들은 제십일년에 주어졌고, 32장에 제시된 두 날짜는 포로 된 지 제십이년에 주어졌다. 예루살렘 포위의 시작 무렵인 제십년에 시작된 그 열일곱 해의 기간 뒤에는, 30장과 31장에 제시된 제십일년의 두 애굽에 관한 기별이 이어졌다. 함께 볼 때, 제십일년의 이 두 기별은 일요일 법령 직전의 한 기별을 표상한다. 제십이년의 다른 두 애굽에 관한 기별은 기원전 586/585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때나 그 직후에 주어졌다.

그리스도의 오심의 기별은 자정 부르짖음의 기별의 일부로 선포되며, 이 기별은 일요일 법령 때 큰 부르짖음의 기별로 전환된다. 일요일 법령 이전에 애굽에 관한 두 기별이 선포되며, 일요일 법령 때 혹은 그 직후에도 애굽에 관한 두 기별이 선포된다.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절정에 이르는 포위 기간 동안 같은 해에 주어지는 그 기별들의 중복과, 또 다른 두 기별이 일요일 법령 때 주어지는 것은, 언제나 중복이 존재하는 둘째 천사의 기별을 예표한다.

둘째 기별 다음에는 언제나 셋째 기별이 따른다.

“우리는 펜과 음성으로 그 선포를 올려 퍼지게 하되, 그 순서와 우리를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이르게 하는 예언들의 적용을 제시해야 한다. 첫째와 둘째가 없이는 셋째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기별들을 출판물과 강론을 통하여 세상에 전하되, 예언적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미 있었던 일들과 장차 있을 일들을 보여 주어야 한다.”
Selected Messages, book 2, 104, 105.

셋째 기별에서 은혜의 기간의 문은 닫힌다. 미국에게는 일요일 법령에서 은혜의 기간이 닫히며, 온 세상에게는 미가엘이 일어설 때 은혜의 기간이 닫힌다. 이 두 닫힌 문은 모두 셋째 기별을 나타내며, 그 셋째 기별은 언제나 둘째 기별이 앞서는데, 그 둘째 기별은 언제나 이중적인 기별이다.

둘째 천사의 능력 부여는 자정 외침의 기별이 그것과 결합할 때 이루어진다. 에스겔 30장과 31장에서 애굽에 대하여 선포된 에스겔의 선언으로 표상된 바와 같이, 인류에게 선포된 두 기별은 자정 외침의 기별이 언제 둘째 천사와 결합하는지를 밝혀 주며, 32장의 두 기별은 큰 외침 가운데 셋째 천사의 능력 부여를 밝히고 있다.

인간 사건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보여 주는 에스겔의 바퀴는 인류를 위한 마지막 경고, 곧 셋째 천사의 경고를 식별해 주는데, 셋째 천사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경고로 이루어져 있다. 일요일 법령 이전의 한밤중의 외침과 일요일 법령 이후의 큰 외침은, 같은 장 11절부터 16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니엘 11장 40절의 숨겨진 역사와 일치하는 29장의 알파와 오메가 날짜의 '열일곱' 해 안에 놓여 있는 에스겔의 네 날짜로 표상된다.

다니엘서 10장에서 다니엘은 에스겔과 같이 말문이 막히게 된다. 다니엘의 병어리 됨은 세 번의 접촉 가운데 중간에서 일어나는데, 첫째와 셋째 접촉은 천사 가브리엘에게서 왔고,中间的 접촉은 그리스도의 접촉이었다. 다니엘은 베드로가 가이사랴-빌립보와 십자가 사이에 있었던 것과 같이, 중간에 있다. 그 중간에서 베드로는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를 보았고, 다니엘도 10장에서 그러하였다. 세 천사 가운데 中间的 천사는 둘의 기별이 결합된 둘째 기별이다.

넷째 달 다섯째 날과 1844년

에스겔 1장 1절과 2절에서 에스겔은 넷째 달 다섯째 날에 있으며, 이는 1844년의 일곱째 달 운동의 중간 지점과 일치한다. 에스겔은 1844년 4월 19일과 10월 22일 사이의 한가운데에 있는데, 이는 1844년 자정 외침의 기별자였던 새뮤얼 스노우가 보스턴에서 그 기별에 대한 첫 번째 분명한 견해를 제시했을 때와도 같았다. 그때는 1844년 4월 19일 후 93일째이며, 1844년 10월 22일에 문이 닫히기 93일 전이었다. 새뮤얼 스노우는 1844년 7월 21일, 일곱째 달 운동의 한가운데에 보스턴에 있었으나, 자신이 예언적으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함께, 열일곱 번째 희년 주기의 서른째 해에 있는 에스겔과 함께, 그리고 10장의 거울을 보는 이상 중 다니엘의 두 번째 접촉과 함께 서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026년은 2028년에 끝나는 일흔 번째 희년 주기의 마흔일곱째 해를 나타낸다.

두로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대해 언급한 여섯 날짜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두로를 대적하여 선포된 그 한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제십일년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가리켜 말하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부서졌도다. 그가 내게로 돌이켰으니, 이제 그가 황폐하게 되었은즉 내가 충만하게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많은 민족이 너를 치러 올라오게 하리니, 바다가 그 물결을 일으켜 올라오게 함과 같으리라.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헐고 그 망대를 무너뜨릴 것이며, 나도 그에게서 티끌을 말끔히 긁어내어 그를 맨바위 꼭대기 같게 하리라. 그곳이 바다 한가운데서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또 그가 민족들에게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임을 당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북쪽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레살, 곧 왕들의 왕을 두로 위에 데려오리니, 말들과 병거들과 기병들과 부대들과 허다한 백성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가 들에 있는 네 딸들을 칼로 죽일 것이며, 너를 치려고 보루를 쌓고, 토성을 돋우며, 방패를 들어 올릴 것이다. 또 그가 네 성벽을 향하여 공성 병기를 설치하고, 도끼로 네 망대들을 허물 것이다. 그의 말이 많으므로 그 먼지가 너를 덮을 것이며, 그가 무너진 틈으로 들어가는 성읍에 들어가듯이 네 성문들로 들어올 때에, 기병들과 수레바퀴들과 병거들의 소리로 네 성벽들이 진동할 것이다. 그의 말발굽으로 네 모든 거리를 짓밟을 것이며, 그가 네 백성을 칼로 죽일 것이요, 네 견고한 수비대는 땅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이 네 재물을 약탈하고 네 상품을 노략할 것이며, 네 성벽들을

허물고 네 아름다운 집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또 네 돌들과 네 목재와 네 티끌을 물 한가운데에 던질 것이다. 내가 네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리니, 네 수금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바위 꼭대기 같게 하리니, 네가 그물 치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나 주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주 여호와께서 두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무너지는 소리에, 네 한가운데서 살육이 이루어질 때 상한 자의 부르짖음에, 섬들이 어찌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때에 바다의 모든 군주가 그들의 보좌에서 내려와 그들의 겹옷을 벗어 놓고 수놓은 옷을 벗을 것이며, 떨림으로 자신들을 입을 것이다. 그들이 땅에 앉아 시시각각 떨며 너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다. 그들이 너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 네게 이르기를, 항해하는 자들이 거하던 자여, 바다에서 강하였던 유명한 성읍이여, 그와 그 주민들이 그곳에 드나드는 모든 자에게 그들의 두려움을 끼치던 자여, 네가 어찌 이처럼 멸망하였는가! 하리라. 이제 네가 엎드러지는 날에 섬들이 떨 것이요, 참으로 바다 가운데 있는 섬들이 네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사람이 거하지 아니하는 성읍들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할 때에, 내가 깊은 물을 네 위로 올라오게 하며 큰 물들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옛적 백성에게로 내려가게 하며, 너를 땅의 깊은 곳, 옛적부터 황폐한 곳들에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두어 네가 다시는 거주하지 못하게 할 때에, 내가 산 자의 땅에 영광을 세우리라. 내가 너를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비록 너를 찾을지라도, 네가 다시는 영원히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26:1-21.

두로에 대한 기별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해에 선포되었으며, 그것은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 때에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이 전복되는 일을 상징한다. 일요일 법령 때에 미국(두로)은 예언적으로 기뻐하는데, 이는 그것이 예루살렘을 전복하였기 때문이다. 자매 화잇은 이 예루살렘을 라오디게아 상태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로 밝히며, 에스겔은 그것을 “만민의 문들”이라고 부른다. 두로는 예루살렘이 과거 시제로 만민의 문들이 “있었다”고 밝힌다. “문”은 예언적으로 교회를 뜻한다.

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곳이 얼마나 두려운가!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더라. 그가 그 곳의 이름을 벤엘이라 불렀으나,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더라. 창세기 28:17-19.

“벤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며, 두로는 라오디게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로 하여금 태양 숭배의 강요를 받아들이게 하였다고 기뻐한다. 그러나 태양 숭배를 강요하는 자들의 그릇된 환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많은 나라가 바다의 파도가 밀려옴 같이 너를 치러 올라오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두로의 성벽”은 두로의 보호를 나타낸다. “성벽”은 십계명의 상징이다.

“여기에서 선지자는 진리와 의로부터 전반적인 배도가 일어난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을 회복하고자 힘쓰는 한 백성을 묘사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생긴 파손을 수리하는 자들이다.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들 주위에 두신 성벽이며, 그 공의와 진리와 순결의 교훈들에 대한 순종은 그들에게 영원한 안전책이 되도록 되어 있다.” Prophets and Kings, 677.

하나님의 율법은 보호의 벽이지만, 복수형의 벽들은 미국의 공화당의 뿔을 상징하는 두로의 번영과 성공을 ‘보호’하고 산출한 두 가지 원칙을 나타낸다.

“‘또 그가 어린양 같은 두 뿔을 가졌더라.’ 어린양 같은 그 뿔들은 젊음과 순진함과 온유함을 나타내며, 1798년에 선지자에게 ‘올라오는’ 것으로 제시된 때의 미국의 성격을 적절하게 표상한다. 처음에 미국으로 피신하여 왕권의 압제와 성직자적 불관용으로부터 피난처를 구한 그리스도인 망명자들 가운데에는 시민적 및 종교적 자유의 넓은 기초 위에 정부를 세우기로 결심한 이들이 많았다. 그들의 견해는 독립선언서에 반영되었는데, 그 문서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위대한 진리를 천명한다. 그리고 헌법은 국민에게 자치의 권리를 보장하며,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표자들이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종교적 신앙의 자유도 부여되어, 모든 사람이 자기 양심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공화주의와 개신교주의는 그 나라의 근본 원칙이 되었다. 이 원칙들이야말로 그 나라의 힘과 번영의 비결이다. 그리스도교 세계 전역에서 압박받고 짓밟힌 사람들은 관심과 희망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아 왔다. 수백만 명이 그 해안으로 찾아왔고, 미국은 지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들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

그 상징의 어린양 같은 뿔들과 용의 음성은, 이와 같이 표상된 나라의 공언과 실제 행위 사이에 현저한 모순이 있음을 가리킨다. 그 나라의 ‘말함’은 그 입법 및 사법 당국의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그 나라는 자기 정책의 기초로 내세운 자유롭고 평화로운 원칙들을 스스로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가 ‘용처럼’ 말하며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리라는 예언은, 용과 표범 같은 짐승으로 표상된 나라들에 의해 나타났던 불관용과 박해의 정신이 전개될 것을 분명히 예고한다. 또한 두 뿔 가진 짐승이 ‘땅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진술은, 이 나라의 권세가 교황권에 대한 경의의 행위가 될 어떤 준수를 강요하는 데 행사될 것임을 나타낸다.

“그러한 행위는 이 정부의 원칙들과, 그 자유 제도의 정신과, 독립선언서의 직접적이며 엄숙한 천명과, 그리고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국가의 건국자들은 교회가 세속 권력을 행사하는 일을, 그리고 그 불가피한 결과인 편협과 박해를, 지혜롭게도 방지하고자 힘썼다. 헌법은 ‘의회는 종교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나 그 자유로운 행사[실천]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또한 ‘미합중국 아래의 어떠한 직위나 공적 신임의 자격으로서도 종교적 시험은 결코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국가의 자유를 위한 이러한 안전장치들을 노골적으로 위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종교적 준수도 시민 권력에 의해 강요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의 불일치는 상징 속에 나타난 것보다 더 크지 않다. 어린양 같은 뿔을 가진 그 짐승—겉으로는 순결하고, 온유하며, 해가 없는 듯하나—이 용처럼 말하는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441, 442.

미합중국의 기초는 독립선언서와 헌법으로 상징되며, 이들은 각각 개신교주의와 공화주의를 나타낸다. 보호와 번영의 “성벽”은 공화주의와 개신교주의이며, 일요일 법 때에는 독립선언서와 헌법의 원칙이 모두 전복된다. 이는 느부갓네살이 “네 성벽을

향하여 공성 기계를 세울 것이요, 그의 도끼로 네 망대를 무너뜨릴 것임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일요일 법령 때에 모든 “망대”가 무너지는데, 망대는 그 기초 철학이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노력으로 대표되는 교회의 상징이다. 큰 반역자 님롯과 그의 망대에 대하여, 『선지자와 왕』은 다음과 같이 알려 준다. “그 탑이 부분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그 일부는 건축자들의 거처로 사용되었고, 다른 방들은 화려하게 꾸미고 장식하여 그들의 우상들에게 바쳐졌다. 백성은 자기들의 성공을 기뻐하며 은과 금의 신들을 찬양하였고, 하늘과 땅의 통치자에게 대항하였다.” 일요일 법령 때에 두로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기뻐하지만, 국가적 배도 뒤에는 국가적 멸망이 따르며, 그때 북방 왕이 미국의 성벽과 망대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다음 글에서 우리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여섯 날짜를 다루기 시작할 것이다.